

새해 첫 날, 세계 평화의 날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냅니다. 이날은 평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세기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었고, 가공할 만한 핵무기의 등장으로 생존권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목격하고 있지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평화’가 중대한 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가톨릭교회도 복음 정신에 따라 평화에 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4월 11일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면서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1월 6일 교황청 산하에 임시 기구로 정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같은 해 12월 8일에, 매년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더욱 고조 되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세의 인간살이를 측정하고 계획하는 연초(年初)에 하나의 희망과 약속인 ‘평화의 날’이 해마다 지켜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가장 보편적인 가치 즉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이 전쟁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대 교황님들이 매년 발표한 메시지를 볼 때,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로만 파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진정한 평화란 정의, 평등, 화해, 일치, 대화, 연대, 인권, 자유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에페 2,14)를 뿌리 내리는 사명의 본질이 됩니다. 🌍

2023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은 QR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